

**불자들도 촛불 들었다** 3 26개 불교단체 촛불집회 동참  
**“공교육 정상화 이를 것”** 6 서울시교육감 출마 박장욱 교감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17 선지식·합월사 조실 우룡 스님  
**“태국문화와 만나다”** 19 전통인형극 ‘곤’·영화 ‘카르마’

## 걸음 걸음 피어난 ‘참회의 꽃’

### 봉정암 10보1배 동행기

6월 10일 조계종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의 제11차 봉정암 10보1배 참회기도에 42명의 신도들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아침 7시 부산을 출발해 오후 1시경 설악산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다. 이들은 첫날 백담사에서 오세암까지 약 5km에 이르는 산길을 오른 뒤, 오세암에서 쉬었다. 이튿날 오세암에서 봉정암까지 약 4km를 10보1배로 참회의 길을 나섰다. 72시간 동안 14km의 산행과 4km의 10보1배는 한 걸음 한 걸음 참회의 꽃을 피웠다.

참회기도를 담당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10억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를 참회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회에 걸쳐 10보1배 참회기도를 봉행해왔다. 이번 순례단 출정에 앞서 스님은 “봉정암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부처님 진신 뇌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불자라면 평생 꼭 한번은 가고 싶은 도량이지만 워낙 멀고 험한 산길이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부처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며 올라가기에 10보1배는 좋은 방법이다”며 기꺼이 따라와 준 신도들을 격려했다.

버스는 6시간을 달려 백담사에 도착했다. 백담사를 둘러본 후 오세암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순례단은 걸음마다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인간과 자연의 상상, 화합, 평화를 염원했다. 이번엔 처음 참가한 박보순(44)씨는 “불자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성지라고 해 늘 가고 싶었다”며 웃었다. 8번째 봉정암 순례에 따라나선 김소순(63)씨 역시 “늘 걸어서 올라지만 이번에는 꼭 10보1배로 봉정암을 오르겠다”며 10보1배의 각오를 다졌다. 오세암으로 향하는 산길은 경사가

45도는 뒹칠할 만큼 가팔랐다. 처음 산길에 올랐을 때는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던 이들도 30여분이 지나자 말수가 줄어들었다. 자기와의 싸움, 고행이 시작됐다. 순례단은 영시암을 거쳐 4시간여를 걸어 오세암에 도착했다. 무릎연골, 발목인대, 교통사고로 인한 허벅지 부상으로 다리가 아픈 박희숙(48)씨는 “수차례 수술해 다리가 아프지만 봉정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힘들었던 산행을 말했다. 또 최고령 참가자인 이덕연(66)씨도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란 심정으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외며 걸었다”고 밝혔다. 순례단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모두들 내면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오세암에서 저녁공양을 마치고 김기범 법사는 순례단에게 “내일 있을 10보1배는 개인의 신심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하면 다치게 돼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도 있으니 자기 능력에 맞춰 윤통성 있게 10보1배를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불자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저녁 예불과 108다라니기도까지 모두 마친 뒤 몸을 누였다. 온종일 걸은 피로 때문에 놀자마



봉정암이 보인다 6월 11일 오세암을 출발한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의 봉정암 10보 1배 참회기도 순례단이 5시간이 넘는 고행 끝에 드디어 봉정암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섰다. 박재원 기자

### 부산 불광사 신도 42명 72시간 대장정 참가 66세 어르신·다리 불편한 신도도 무사회향

자 어디선가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등산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까 매일 하던 절이지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1배, 1배를 거듭하면서 허벅지와 팔 근육이 묵직해짐을 느끼며 속스러운 감정은 사라졌다. 운몸으로 전달되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되뇌었다. 한 걸음에 살생으로 지은 죄를, 또 한 걸음에 투도로 지은 죄를, 세 번째 걸음에 사음으로 지은 죄 등... 내딛는 걸음에 10억을 지은 스스로를 참회하며 10보를 나아갔다. 그리고 1배하며 10가지 악업을 참회했다. 순례단

이 산길을 지나하는 동안 등산객들이 경의심과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담아 웅얼의 목소리를 높였다. 절을 할 때 땅에서 일어날 때 먼지가 코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곧 봉정암을 향해 올라간 순례자들의 흔적이니 이마저 뜻 깊은 경험일 것이다. 봉정암에 가까워질수록 이미 다리가 무거워 한걸음 떼기도 힘들 정도였고, 어깨에 맨 배낭조차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이미 10회나 10보1배를 해온 김기범 법사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 온 힘을 쏟고 집중하다 보면 무념무상이 된다”며 “괴로움에도 단계를 있고, 참회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에서 쉬어가는 코너인 것”이라며 일행을 격려했다. <10면에 계속> 박재원 기자

### 현대불교 '이상시문학상' 제정

상금 2천만원 '시와세계' 공동 주관·선시 활성화 기대

‘현대불교’가 시 전문 계간지 <시와세계>와 공동으로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한다. 이상(李箱)은 1910년 9월 23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7년 4월 17일 일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자, 그러나 그가 지향한 문학적 태도는 온건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과격한 모더니즘이고 그런 점에서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요약된다. 그의 시는, 문학, 예술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미적 부정과 이런 현실 속에서 생산되는 문학, 글쓰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모더니스트들과 구별되고 이런 차이가 아방가르드 정신과 통한다. 물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끝났다. 그러나 광의의 아방가르드 전위는 살아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소수의 전위파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는 문학과 예술의 제도성에 도전하고 답답한 전통과 인습과 미학을 부정하고 일상과 예술, 일상과 문학의 단절을 즐기는 부르주아 시학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한다. 이 시대 우리 시가 답답하고 핏기가 없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의 전위

■ 상금: 2천 만 원  
 ■ 시상일: 2008년 9월 23일  
 ■ 심사위원: 추후 발표  
 ■ 운영위원: 慧月 · 高敬眞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시와 세계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영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에서 소망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울어온 악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각수로 관불, 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 성불조각원 www.sun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페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033)263-1102 · 017-379-0590